배움과 우정의 공동체 실상사작은학교 길.라.잡.이

길라잡이 벗이 되어 함께 배우는 사람들의 학교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라난다

실상사작은학교
www.jakeun.org

목 차

03 마중물

04 실상사작은학교 연혁

06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_ 인간상

07 이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_학교 철학

10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_ 배움의 방향
_ 5년 배움의 줄기
_ 배움과정의 특징
_ 교과구분

14 함께 배우는 사람들_학생_교사–양육자

16 공동체 생활 배움

22 일년 주요 학사 흐름

24 수업료 안내

25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26 2025년 시간표

27 학년별 주요 프로젝트

30 새식구를 기다리는 마음

31 실상사 작은학교의 살래 이웃들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 서서
당신이 나를 비추고
내가 당신을 비춤을 기억하며
기꺼이 내가 먼저
당신의 벗이 되겠습니다."

길 위에서 . . .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사람이 걷고, 열 사람이 걷고, 백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길을 낳고, 길 은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일지라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걷는 사람에 따라 길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길을 가는 방식과 어떤 길을 선택 할지 는 순전히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 갈래로 이어진 한 길입니다. 이 길은 '기꺼이 벗이 되어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첫째,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소중함과 우주자연의 근본 질서에 눈 뜨고 실천하는 삶입 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평화와 행복을 원하며, 생명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아 세상만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거쳐 사람이 살아가야할 도리에 눈뜨 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존중과 사랑,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알고, 불의와 차별에 저항할 줄 알며,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성장하게 하는 형제애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셋째, '자기의 길'입니다. 자기의 길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눈뜨고 자기의 결에 맞는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유인의 길입니다. 자기애를 넘어 소명을 가진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길입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자기의 길'** 을 가도록 돕는
우정의 배움터 입니다.

1999. 6 실상사에서 불교계 대안학교 설립 결정

1999. 9 학교 준비 모임

2000. 2 교사 모집

2000. 3. ~ 12. 교사회 연수, 학교철학을 구체화하는 교육과정 구성

2000. 11. 학교 설명회

2001. 3. 실상사작은학교 개교 및 첫 신입생 입학 (15명)

2002. 3. 제9회 김용근 민족 교육상 수상

2004. 2. 첫번째 졸업 (13명)

2007. 7. 학사 신축 이전, 현재의 터전으로

2010. 3. 무학년 2년제 고등학교 과정(언니네) 시작 1기 입학 (5명),

2010. 6. 실상사작은학교 10주년 기념 축제 "지리산아, 우리도 이제 열 살이다."

2010. 7. 언니네 1년차 (고등1학년) 해외이동학습 (2달)

2010. 8. 10주년 기념 토론회 "실상사작은학교 10년 돌아보기와 향후 과제"

2010. 11.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서울)

실상사작은학교 연혁

2015. 12 **실상사작은학교 '전환과 모색' 활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
2016. 실상사 작은학교 전환과 모색기
1년동안, 전환과모색위원회 활동, 마을간담회, 특강,
교사-학부모 간담회/연수
2017. 3. 중학교 17기(10명), 언니네 8기(4명) 입학식
2018 4학년 해외이동학습
태국 시사아속공동체와 덴마크 겔트럽 에프터 스콜레
2019 홍법사 한해여는 마당(3/4~7) (19기 6명, 언니네3명 입학),
4월 스타렉스 구입
2020 코로나 팬대믹 대응의 해, 식수원 부지 매입
2021 **20주년 기념 스승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기**
2022. 1. 17기 10명 졸업, 전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2023 세상보기 지리산둘레길 250km
2024 세상보기 그섬에 가고싶다 230km(비금,도초도)
2025 세상보기 갈등을 꽃피우기(광주-대구걷기 240km)
학교건축물 양성화 완료
8월 현재 24명 재학중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人間象

기꺼이 벗이 되어 함께 배우는 사람

不請之友, 隨處作主 立處皆眞, 上求菩提 下化衆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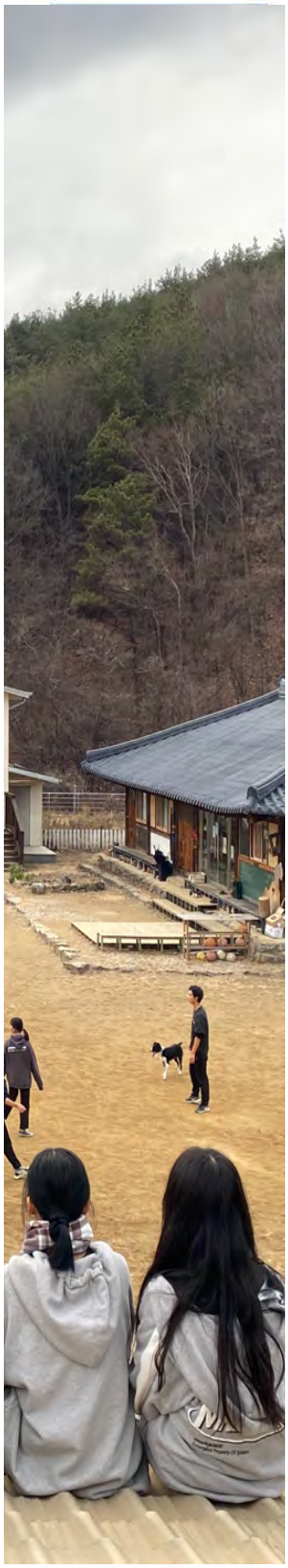
깊이 듣고 사랑을 담아 말하겠습니다.
지구적 안목을 갖춘 마을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몸, 마음, 정신을 키우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늘 깨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學校哲學

생명평화의 삶을 실현하는 인드라망 세계관

LIFE PEACE, 어울림, 삶

공동체
배움
생태
자립
우정



생명평화를 실천하는 방법과 중심 가치는 실천주체에 따라 무척 다양할 것입니다.
작은학교가 지향하는 중심 가치는 **배움 · 우정 · 생태 · 자립 · 공동체** 입니다.

배움

- 평생 배우는 이로 살고, 삶속에서 배움을 실천하고 나눕니다.
-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터득하고 스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기술(정서적 안정, 토대지식, 손기술)을 익힙니다.
-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더불어 살줄 아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공감 · 소통능력을 키웁니다.

우정

- 우주만물의 생성과 조화로운 삶의 바탕이며 서로를 살리는 생명원리입니다.
- 다름은 틀림이 아닌 각자의 고유성이며 서로를 비추는 등불임을 알고,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형제애를 키웁니다.
- 존중과 배려,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 학교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꿉니다.

생태

-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존재질서에 눈뜨고, 뭇 생명의 어머니인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생명순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소비할 줄 아는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 친환경적인 먹거리 자급을 위해 기꺼이 땀 흘려 농사짓고,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는 일을 학교의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합니다.

자립

- 참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판단과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압니다.
- 언제 어디서나 자기 삶의 주인됨이며, 함께 하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어울릴 줄 압니다.
-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할 줄 알고,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기꺼이 연대하고 동참합니다.

공동체

- 다양한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평화롭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 갑니다.
- 민주적 절차와 평등한 회의문화를 바탕으로 서로가 주체로 참여하고 기꺼이 협력합니다.
- 학교를 너머 마을과 함께 하며,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 배움의 방향

5년 배움의 줄기

학제

생명과정(1,2학년)
사랑을 바탕으로 생명으로 깨어나기

중심주제

- 생태평화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온전한 사랑과 치유 과정 경험
- 유기체인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와 탐구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성 자각

탐구영역 / 주요교과활동

- 공동체, 평화서클, 비폭력 대화, 명상 교과를 바탕으로 함.
- 예술문화영역과 건강한 놀이 중심
- 무디어지고 상처받은 존재의 회복 및 감각 깨우기 과정.
-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능력 키우기
- 뇌과학(신경), 심리와 감정의 발달과정 이해 등을 반영.

평화과정(3,4학년)
정의를 바탕으로 평화로 살아가기

중심주제

- 정의에 대한 이해
- 생명이 평화로울 수 있는 관계성, 사회제도, 문화 이해.
- 창조적 대안 모색
- 질문서클(소크라테스 대화)

탐구영역 / 주요교과활동

- 현재 진행 중인 민주시민, 세계시민공부를 바탕으로 함.
- 질문수업, 회복적 대화, 회의진행과 의사결정 역량 키우기
- 평등과 차별, 돌봄과 회복, 사회적 이슈 바라보기, 국제정세, 사회적 연대활동

우정과정(5학년)
생명평화를 바탕으로 우정을 꽃피우기

중심주제

- 생명으로 깨어나고, 평화로 살아본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자기 역량을 마음껏 꽃 피우기.
- 세상과 기꺼이 만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펼쳐가기.

탐구영역 / 주요교과활동

- 자서전, 인턴십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함.
- 자기주제수업 개설

▶ 배움과정의 특징

- 삶을 위한 공부, 삶과 일치하는 공부
- 머리, 가슴, 팔다리(손)의 通하는 균형 잡힌 공부
- 토대지식을 다지는 공부
- 평화 감수성을 깨우고 자신과 타자를 공감하는 평화서클대화
- 배움을 주체적으로 엮어가는 선택수업
-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 주도 공부 (자기주제공부, 학생개설수업)
- 세상과 소통하며 시민의 안목을 키우는 공부
-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공부
- 조화로운 공동체, 신뢰와 존중이 깃든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공부
- 마을 속에서 배우는 공부

▶ 교과구분

지식교과

배우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우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읽고, 쓰고, 표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힘을 길러 관심영역에 대해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교과예) 글쓰기, 고전 · 문학일기, 시사토론, 외국어(영어,일본어), 우주이야기, 수학, 철학, 역사

생태. 자립교과

자립하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자급기술을 배우고 머리, 가슴, 손을 고루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자연의 순환에 따르며 땀흘려 생산하고 귀하게 먹는 농적인 삶은 자연과 생명을 귀하게 대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더불어 하며 공동체의 자립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교과예) 농사, 적정기술, 바느질, 목공, 밥모심

예술교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를 발견하고, 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입니다. 배우고 느낀 것들을 총화해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힘을 키웁니다.

교과예) 연극, 음악, 미술, 밴드, 감각깨우기

평화교과

평화감수성을 깨우는 서클 대화를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타자를 공감하는 힘과 민주적인 소통 능력을 키웁니다. 성교육을 통해 성(sexuality)과 젠더(gender)를 이해하고 조화, 존중하는 평화적 태도를 배웁니다.

교과예) 평화감수성훈련, 회복적서클대화, 공동체 놀이, 성인지감수성 교육, 페미니즘

프로젝트형 주제공부

길을 걷고 연대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배움을 찾는 프로젝트 교과입니다. 주제 선정부터 계획– 준비– 실행–마무리까지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학교와 교과를 넘어서 넓고 깊게 세상을 만납니다.

프로젝트) 세상보기(도보순례 : **전학년**)
관계맺기, 자기이해 **(생명과정)**
민주시민교육, 해외이동학습 **(평화과정)**
미래시민공부, 인턴십, 자서전 **(우정과정)**

기꺼이 벗이 되어 함께 배우는 사람들

실상사작은학교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학교철학인 '인드라망세계관'에 동의하고 생태,자립,공동체적 삶을 바탕으로 배움과 우정을 실천하는 도반으로서 학생, 배움지기, 양육자가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학생공동체

자발성과 연대를 통해 내가 먼저 하고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따뜻한 문화를 가집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어울려 놀면서 배웁니다.

-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규칙
- 학생이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학교 살림들(청소, 식사당번, 발우공양지원, 김장, 다양한 먹거리 생산 등)
- 학생이 주도 하는 학교 문화 : 따뜻함, 환대, 신뢰, 활발함.
- 작은가정 회의, 학생회의, 야단법석 상임위 회의를 통한 자치 문화
- 학생들이 기획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축제, 연음제
- 학생들이 작은가정에서 스스로 밥을 짓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공동체적 살림살이

배움지기 공동체

진리를 따라 길을 가는 수행자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언제나, 배우는 학생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보고 아이들을 만나며 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도반으로 살아갑니다.

양육자 공동체

작은학교 공동체의 식구로서 학교를 함께 일구어 갑니다. 함께 배우는 도반으로서 배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성숙함의 기쁨을 느낍니다. 배움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는 벗들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양육자님들은 함께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 경청하는 연습, 대화하는 연습 등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아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양육자님들의 삶의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자라나는 공동체

– 양육자, 배움지기 공동 여름/겨울 연수

– 신입생 양육자 연수

– 작은가정 양육자 생활지기(금요일~일요일, 2박3일)

– 위원회 활동: 운영 위원회, 홍보(후원)소위, 교육위원회, 재정소위원회, 시설소위원회

공동체 생활 배움

야단법석

- 학교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 (대중공사)
- 민주적이고 회복적인 대화문화를 정착
- 학생자치(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서클방식을 통해 회복적이고 평화적인 소통방식
- 긴급야법 대상 : 폭력, 음주, 욕설 등
- 책임방안은 당사자가 직접 제안하고 야법에서 이를 채택합니다.
- 기본적인 공동체 예절(신발정리, 청소, 인사, 양보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문화를 만들어나갑니다.
- 문제의 해결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다룸.

* 야단법석
'야단(野壇)법석(法席)'은 부처님 당시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는 법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문화를 가꾸는 장이었습니다. 작은학교에서는 모두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최고의결 기구입니다.

* 회복적 정의
'회복적(restorative)'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회복적 정의는 갈등이 있을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피해와 그로 인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피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의무를 직시하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추구합니다.
(cf. 응보적 정의)

발우공양

불교전통의 식사방식으로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자연과 농부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성들여 음식을 먹는 법(法)입니다.

발우공양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공양입니다. 누구는 맛있는 것을 먹고, 누구는 맛없는 것을 먹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마주보고 먹으며, 보시물이 있는 경우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작은가정

교사와 학생이 작은 규모로 함께 살아가는 작은가정은 작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인 가치를 일상생활을 통해 체득하는 제2의 교육 현장입니다. 학생 7~8명 과 배움지기 1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현재, 달장, 별장, 순아네 3가정을 운영중입니다.

작은가정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며 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교육의 장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개성이 살아있고 그 개성이 부딪히고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문화 그 자체입니다. 각 가정마다 저마다의 문화가 있듯이 각각의 작은가정마다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작은가정에서 학생은 스스로 걸림 없이 드러내고, 부모님들도 스스럼없이 작은가정에 어울립니다. 부모님들은 늘상 함께 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함께 하는 작은가정의 식구로서 우정을 나누고 관계 맺습니다.

농사

작은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짓는 농사는 체험을 넘어 아이들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넓은 논과 밭에 서서 자신의 먹거리를 스스로 기릅니다.
땅을 살리고 자원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사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시간에 따라 거름을 뿌리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밭을 매고, 가꾸고 수확하여 먹는 활동을 통해 땀 흘리는 일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생명과 평화가 머리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작은학교는 현재 논 5,000평, 밭 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쌀, 감자, 고구마, 양파, 김장배추 등 우리가 주로 먹는 작물들을 스스로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내 손으로 짓는 과정은
하늘과 땅과 바람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의 손으로 함께 짓는 과정은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일년 주요 학사흐름

		내 용	
1학기	3월	한해여는마당, 입학식	
	4월	4.16 기억행동, 세상보기(2주 도보순례)	
	5월	민주주의 공부의 달 5.18기념 주간	
	6월	주제 집중 공부 주간	
	7월	학기마무리, 교과발표회, 방학식	[평화과정 : 3~4학년] 8월부터~ 해외이동학습, 민주시민 현장학습 [우정과정 : 5학년] 미래시민 현장학습(인턴십)
	8월	여름방학	
2학기	9월	[생명과정 : 1~2학년] 관계맺기, 자기이해	
	10월	농사갈무리(추수,수확), 학교설명회	
	11월	여극음악제, 김장, 학기마무리, 방학식	
	12월	연음제, 김장, 학기마무리, 방학식	
	1월	5학년 자서전 발표회, 졸업식	

한해여는 마당과 학기여는 마당

한 해를 살아갈 학교에 마음과 몸을 가져 옵니다. 학교 식구들이 올 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려보고 마음을 모으며, 우정을 나누고 의욕을 돋우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배움의 계획을 세웁니다. 새 식구들에게 학교를 잘 안내하고, 평화롭게 관계맺기를 합니다.

2학기에는 학기여는 마당을 열면서 살아갈 학교에 마음과 몸을 가져 옵니다. 학교 식구들이 2학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등을 그려보고 마음을 모읍니다. '우정'의 관계문화 실현을 위해 의욕을 돋우는 시간입니다. 2학기 배움의 계획을 세웁니다.

배움 계획서

학생들의 주도적 과제 탐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기 배움계획서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기중 길잡이와 이야기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기마무리 주간에 스스로 세운 배움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생 자기 비추기와 학생에 대한 길잡이 비추기가 이루어집니다.

세상보기

세상보기를 통해, '긴 걷기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과 대화의 시간 갖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고 책임지는 자세 배웁니다. 지리산의 역사, 지리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사회의 주제, 시대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공부하며 알아갑니다.' 이와 같이 '머리, 가슴, 팔다리가 通'하는 배움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세상보기를 떠납니다. 세상보기는 3년 주기로 주제가 달라지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길 을 걸으며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전공부-전체공부, 특강, 모둠공부 / 모둠활동-모둠정하기, 모둠계획세우기 등은 3월부터 준비합니다.

주제 집중 공부 주간 (각 과정별 1~2주간)

집중기간에 할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하고 배워 완성물을 만들어 냅니다. 주제를 정하고 실행하고 완성함으로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위 기간을 집중함으로서 조금더 심화된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연극음악제

연극이 중심이 되는 발표입니다. 전학년이 연극 수업을 받습니다. 일년 혹은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함께 한 친구들과 관객들과 교감하는 자리입니다.

수업료 안내

2017년부터 나눔정신에 따라 자율적으로 약정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상사작은학교의 배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배움의 길에 경제적 조건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나름 수업료 인상을 자제하고,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학교의 경제적 문턱을 낮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이유로 학교의 식구가 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2016년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공동체의 지혜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CMS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후원인들에게 '이런 학교도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이면 좋겠습니다.

수업료는 내 아이의 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들의 배움터를 일구는 후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으로 누구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배움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일년 단위로 약속한 대로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는 배움의 공동체이며,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십시일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학생, 양육자, 교사가 각자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꿈, 부모님들의 사랑과 지원, 교사들의 노력과 기도, 후원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원력이 모여서 작은학교 식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누어 쓰겠습니다. 형편껏 주시는 수업료를 감사히 받아서 쓰겠습니다. 서로 마음의 부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후원인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는 기본소득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아래 약정서를 1월 말까지 받아서 그것의 총합으로 1년 예산을 짜서 살림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재능기부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업료, 가정생활비, 체험학습비의 틀은 유지되며 약정서는 수업료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생활비와 체험학습비는 실비로 계산합니다. 체험학습비는 학기당 40만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은 돌려드리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합니다.
예산과 결산은 겨울방학 부모님-교사 공동연수에서 공유합니다.

보시금약정서

(학생이름) 네 가족은 2025년 수업료로 총 ( )원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월 / 매분기 / 일시납 / 재능기부) (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이름: (서명)

배움과 우정의 공동체
실상사작은학교

별첨 1. 필수교과 와 선택교과 안내

필수교과

대 상		교 과
생명과정	1학년	비폭력대화, 평화서클, 성과 문화, 수학, 연극, 글쓰기, 명상
	2학년	
평화과정	3학년	영어, 민속타악, 연극, 집짓기, 농사작업장, 민주시민교육(근현대사),해외이동학습
	4,5학년	농사, 시사읽기, 연극, 미디어리터러시, 무문관, 인턴십, 자서전쓰기
공통		야단법석, 발우공양, 자치살림, 세상보기, 농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공예(필수선택), 예술(필수선택), 체육교과(선택)

선택교과

우리말	우리말, 글쓰기
외국어	일본어, 영어, 한문
자연과학	기초과학, 우주/생명이야기, 수학
인문사회	시사읽기, 역사, 지리, 세계시민교육, 미티어리터러시
예술	미술, 영상, 밴드, 감각깨우기, 시노래작곡, 풍물, 사진
체육	농구, 요가, 탁구, 등산(산책), 국궁, 헬스, 달리기
생활기술	수공예(바느질, 직조, 발도로프인형,목공,도자기), 영쉐프(요리), 자전거수리, 적정기술
생태	지구와 함께
학교밖	지리산 마을공부, 자전거타기

아이들은 저마다의 결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결대로 피어난다는 것은
자신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지요.
결대로 피어 날 수 있는 학교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면서 크는 어울림이 살아있는 학교이면 좋겠습니다.

시간표 예시 [2025학년도]

		월			화			수			목			금		
	7:50	아침공양 (7시 30) 배움지기 모임														
다 함께	8:20 ~8:50	전체 아침 모임												과정별 아침모임		
	15분	청 소														
		생명	평화	우정	생명	평화	우정	생명	평화	우정	생명	평화	우정	생명	평화	우정
1 교 시	9:20 ~10:00 (40)	평화서클	<선택> 우주이야기 (4, 5학년) 헌법 한문		영 어 (4개반)			성과문화	수학	우주이야기(은하) 연극	글쓰기	농사작업장(가)	<선택> 명상 수학	수학	연극	시사읽기
2 교시	10:00 ~10:40 (40분)															
	20분	쉬 는 시 간														
3 교 시	11:00 ~11:40 (40)	연극	성과문화	민주시민 자서전쓰기	농사			<예술선택> 감각 깨우기(청개구리) 미술(미정) 창작 (나연) 밴드(김한결)			비폭력대화	농사작업장(가)	<선택> 우리말 일본어	<야단법석>		
	10분															
4 교 시	11:50 ~12:30 (40)															
공 양	12:35 ~1:55	발우공양			점심공양			상임위회의			별별당모임					
5 교 시	2:00(20) ~3:00 (60)	1.3주 글쓰기 2.4주 연 수			학년별 시간			자치살림			<체육선택> 농구(수용) 몸살림(제제), 달리기(수옥) 탁구(임인숙)			<학교밖학교> 마음&사진&마을 헬 스 국 궁 목공(밤비/지령이)		
6 교 시	3:00 ~4:00 (60)				<체육선택> 산책(지령이) 탁구(지음) 요가(은영) 농구(수용)						학생자치회의 배움지기회의					
	4:00 ~4:30	간식														
	4:30 ~5:30	5학년 인턴십 프로젝트						살래뎡크								

별첨 3. 학년별 주제 프로젝트

3학년 주제 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 인권과평등	
	민주주의의 이해, 민주적 소통,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할, 인권과 평등, 법과 정치제도, 사회참여와 공적연대활동	
	집짓기 / 농사작업장	
	집 짓기 공부, 다양한 생활 기술(용접, 연장다루기, 전기, 생활과 관련된 각종 기술등), 디자인, 탐방 등	

1) 민주주의/인권과 평등

– 의미 :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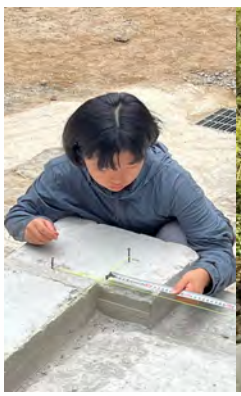
– 내용 :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민주적 가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학교 안팎에서 경험합니다. 인권과 평등, 민주적 권력행사의 본질을 알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눈뜨고,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랑과 사회 참여의 실천력을 키웁니다.

①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민주적 소통, 민주시민의 삶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공부

②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권과 평등, 법/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사회참여와 공적연대활동

2) 집짓기 / 농사작업장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공부의 영역(농사, 건축)을 새롭게 만나 순환하는 삶, 자주적인 삶의 기초를 놓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풍요로운 감수성을 일깨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삶의 예술성을 증진시켜 나간다. 자립의 삶의 배움을 현실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익힌다. 생활기술을 익히고 협력을 통한 큰 성취를 느낀다, 원리공부, 디자인, 직접 짓기, 탐방, 생활기술 익히기 등 각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게 진행합니다.



주제 프로젝트

주제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에 관련된 교과를 구성

(평화과정) 3,4학년	**세계시민공부**
	해외 탐방 + 문화체험, 국제구호 등
	방문할 공동체, 언어, 정치, 사회, 역사, 지리, 경제, 문화에 대한 학습, 영어 학습, 한국의 전통, 문화, 학교 소개 준비
(우정과정) 5학년	**미래시민공부**
	인턴십(Internship) / 자원봉사 + 자서전 + 진로 탐색 + 세상을 아는 공부
	자기 이해, 진로 탐색(진로 검사, 포트폴리오, 특강, 현장 체험 등), 글쓰기 세상을 아는 공부, 노동의 가치, 청년의 삶 그리기.

1) 세계시민공부(3,4학년)

– 세계시민공부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모습을 몸소 확인하고 체험하여 세계시민으로서 눈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25년에는 태국(방콕,치앙마이,란나아속), 라오스(비엔티안,방비엥,루앙프라방), 베트남(평화기행)

2) 미래시민 공부

– 인턴십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살고 싶은 삶을 미리 엿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람 만나고 풍부한 삶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약 7주에 걸쳐서 진행되며 가기 전에 필요한 공부와 자기 이해를 위한 검사, 상담, 성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현장 섭외 등을 학생이 직접 진행하며, 학교로 복귀한 후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며 자료집을 냅니다.

*2024년 5학년 인턴십 현장

이 름	현 장	이 름	현 장
김 율	몽당연필(일본오사카)	서우진	제주 나오미센터(제주시)
박귀민	한국이주인권센터(인천송도)	안은서	연세대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서울)
박민수	식당요수정(서울마포)	임재율	대장간 춤추는망치(충남 부여)
박성연	테스트키친 홍성(충남홍성)	장미르	티벳 펄싱 연구소(경기 의왕)

*2025년 5학년 인턴십 현장

이 름	현 장	멘 토	지 역
이은서	마이드디자인 –불교박람회등 이벤트기획 사회적기업	서문희님	서울/대구
서신욱	습지와 새들의 친구 –동아리활동과 기후관련 활동, 낙동강 조류관착, 종조사 개체수	강성화님 (사무국장)	부산

– 자서전 쓰기 : 자서전은 새로운 단계(졸업 후)로 진입하기 직전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기성찰을 위한 다양한 기회(글쓰기 수업, 상담, 특강 등)를 제공하고, 졸업식 전날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서전 모음집을 냅니다.

– 졸업 이후 청년으로 살아갈 삶을 고민합니다.

새식구를 기다리는 마음

새식구를 기다리는 마음

새로운 식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뜨겁게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는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 차길 바라지만.
때로는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설렘과 기대보다
더욱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사실은
지금 이 글을 함께 읽는 모두가 똑같이,
이 간절한 염원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순간은 새생명이 탄생하는
순간과 같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일은, 그저 다가오는 당신이란 물결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게 될 여정을
배움과 우정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실상사 작은학교로 향하고 있을
당신을 환영합니다.

실상사 작은학교의 살래 이웃들

실상사 작은학교가 있는 살래마을에는 실상사사부대중공동체_
실상사, 실상사농장, 한생명, 산내들어린이집,
느티나무매장, 생명평화대학이 있어,
함께 수행하고 공부합니다.
지리산 깊은 시골마을이지만,
마을의 자치적인 활동이 활발하여,
마을 안에서, 문화, 예술, 교육, 사회운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살래마을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실상사작은학교는 살아갑니다.

장로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세상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행동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그들은 싸우고, 투쟁하고, 자기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세상에 온 사람들이야.
생각하고 느끼고, 사리 분별하기 위해 태어나는 이들도 있어.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다. 아들아, 세상의 비밀, 인생의 마법은 어떤 길이 너의 길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너의 참모습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아버지처럼
전사이자 지도자로 태어났다면 그 길을 가라. 너를 위대한 전사이자 지혜롭고 진실한 지도자로
만들어줄 정신의 선물, 타고난 재능을 찾아 나서라.
하지만 너의 마음이 다른 길을 향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택해라.
그리고 그 길에서 널 도와줄 힘을 찾아라.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힘이 아닌 다른 소명으로
이끌어줄 힘을 찾아 나서라. 훌륭한 카누 장인은 진정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중요하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 네가 되려는 그 모습을 가장 멋지게 구현하기 위해 모든 재능을 이용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 인생의 씨실과 날실 (베티 스텔리 지음, 하주현 번역, 푸른씨앗)

배움과 우정의 공동체 실상사작은학교
(55804) 전북 남원시 산내면 해오름길 85
전화 010-2786-3369 / Fax. 063) 636-3878 / 누리집 http://www.jakeun.org / E-mail. silsang@jakeun.org